

남한 토양썰기 구조의 산출특성과 선사 고고유적지 층위형성에의 의미

김주윤, 양동윤, 홍세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

남한의 고고 유적지에 나타나는 토양썰기 구조는 표토층 하부에 현재의 계절기 후하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비교적 단단한 매질의 암갈색, 황갈색, 적갈색의 사니질층에 포함되어 나타난다. 본 토층은 남한에서 고기 풍성층, 고기 사면퇴적층, 고기 해성 퇴적층, 고기 하성퇴적층 등 다양한 환경하에서 형성된 퇴적층의 퇴적후 낮은 단계의 속성작용(diagenesis)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토양단면에 대한 야외노두관찰과 현미경 관찰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산상을 보면, 퇴적층이 이차적으로 토양썰기(soil wedge) 혹은 동결균열(frost cracks) 등과 같은 물리적 문양구조토층(pattern ground)와 적색화(rubification), 토립이동(translocation), 실트피막형성(silty capping)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양썰기 포함된 선사 고고유적지의 토층은 낮은 단계의 속성작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토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토양화작용(pedogenesis)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는 토양썰기 구조는 물리적인 토양화, 기계적 화학적 토양화가 중첩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토양썰기구조는 고토양층의 특징을 보이며, 남한 후기 갱신세(Pleistocene) 층위구분과 선사유적지의 층위 해석을 위한 토양층서단위(pedostratigraphy)의 건층으로 이용할 수 있다.